

광주시, 겨울방학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광주시는 겨울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돌봄이웃 아동 1만6354명에게 26일부터 2월28일까지(방학 평균 50일) 급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아동급식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급식비 지원단가 4000원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급식지원자 중 계속 지원 대상자와 올해 급식 신청자를 포함한 1만6354명으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

돌봄이웃 아동 1만6354명 내년 2월 28일까지 지원단가 4500원으로 인상...전자카드로 지급

원대상가정,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보호자 부재가 구, 보호자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긴급보호필요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맞벌이 가구, 그 외 교사, 동 담당 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이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를 지급하며, 급식제공 기관 1097곳 을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 반음식점 식당 778곳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밭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4

곳에서 도시락을 분량충합마트 등 7개 마트에서 식품(부식 등)을 지원 받고 지역아동센터 308곳에서 진행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단가를 조정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더 힘쓰겠다"며 "특히, 방학 중 급식이 차질없도록 급식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등 위생점검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2017년도 우수시책 베스트5 선정

광주 동구가 26일 2017년도 구정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교부세(금) 등 193억 확보' 등 구정을 빛낸 '구정 베스트5'를 선정·발표했다.

동구는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 목표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왔다.

특히 이번 베스트5 선정은 각 부서별로 우수 후보시책을 추천하고 '동구 두드림' 앱 정책투표 기능을 활용해 1,632명의 주민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였다.

서구, 재난사고 대비 목욕장업 지도점검

광주 서구가 연면적 1,000㎡이상 목욕장업 13개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되는 목욕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

점검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출입문 및 비상구 관리상태 ▲화재 및 재난대비 탈출 비상용 담지·손등 비치 안내 등을 점검한다. 특히, 비상구로 연결되는 내·외부 통로에 불필요한 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남구, 식약처 주관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광주 남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음식문화개선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정한 외식환경 조성 및 건강한 식단 실천, 지역특화사업 등을 포함한 음식문화 개선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양립동 특화메뉴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 남구는 일반 주민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주민 5,333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적게먹기 및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물품 및 시설 지원에 나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 민방위업무 10년 연속 최우수기관

광주 북구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업무가 광주 자치구 최고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민방위업무 평가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북구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민방위운영 활성화 시책 등 7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실시했으며, 북구는 평가항목 고른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쌍암공원 등 3곳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2일 광주 광산구가 쌍암공원 등 3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

지난 5월 3개 추진전략 14개 주요과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광산구는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원 관리, 피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신호등 설치의 종합대책 주요과제 중 하나로 광산구의 특별교부금 지원받아 추진한 것. 신호등 설치에 따라 쌍암공원 입구, 1913송정역시장 부근, 수완동주민센터 주변에 살거나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광산구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다.

임행택 기자

전남 공동주택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업무협약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센터장 박정훈)는 전남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전남지역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는 지난

8월 전남 19개 시군 소재 100여 단지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고용노동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향후 공동주택 근로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자 지원정책 안내나 근로기준법 교육 등 협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협약에 참여한 아파트의 정문에는 '상호존중 행복센터'라는 현판을 설치해 입주민에게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했다.

박정훈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광주 교통문화지수

최하위 수준... 14위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2017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광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 광산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67위, 남구는 60위에 그쳤다.

26일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공개한 2017년 교통문화지수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80.09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정지선 준수율, 횡단중 스마트폰 사용률 등 현장 조사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 통계 등을 4개 부분 11개 항목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올해 전국 평균은 81.56점이다.

광주는 지난해 85.39점에서 올해 5.33점이 떨어졌으며 순위도 5위에서 9단계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75.49점을 기록해 69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인 67위였다. 남구는 78.71점(60위), 북구 80.35점(52위), 동구 80.58점(50위), 서구 83.06점(37위)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83.40점에 모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시는 횡단보도준수율이 전국 평균 79.86점에 훨씬 못 미치는 69.98점을 기록해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다.

스마트기기 사용률 역시 전국 평균 13.15%를 상회하는 16.46%를 기록해 16위를 기록했다.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방항지시등 점등률은 양호했으나 교통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지수를 나타내 심각성을 내뿜었다.

남도학숙 2018년도 신규 입사자 모집

제2남도학숙 준공...총 808명 모집 경쟁률 완화 전망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사장 광주광역시시장 윤정현,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재영)는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장학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남도학숙의 2018년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사생 모집 규모는 내년에 개관하는 제2남도학숙(서울 은평구 소재) 입사생 517명과 현재 운영중인 제1남도학숙(서울 동작구 소재)

의 입사생 291명 등 총 808명이다. 시·도별로는 광주 397명(남 184명, 여 213명), 전남 411명(남 190명, 여 221명)으로 2017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남도학숙 입사경쟁률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에 문을 여는 제2남도학숙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불광역, 6호선 역촌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북지역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한편 남도학숙은 월 16만원의 저렴한 이용료와 각종 장학제도 교양강좌 등 대학생활과 사회진출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실시한 제1남도학숙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89.8%의 학생들이 학숙 생활 전체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그 중 급식(1일 3식) 만족도는 96.5%로 가장 높았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점·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